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복사·배포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 (명절 특별명절1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dashy.co.kr 0801-320-7700

■ 금주의 프로야구

호랑이 빠진 PO행 자리다툼 '후끈'

◇프로야구 중간순위 (15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72	37	0.661	0.0	1승
2	두산	63	47	0.573	9.5	3승
3	롯데	64	48	0.571	9.5	2승
4	삼성	60	57	0.531	16.0	2패
5	한화	60	60	0.500	17.5	1패
6	KIA	52	63	0.452	23.0	4패
7	히어로즈	42	69	0.378	31.0	2패
8	LG	42	74	0.362	33.5	2승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사직구장을 주목하라'

프로야구 막바지 순위 경쟁이 뜨겁다. 두산과 롯데는 승차 없는 2-3위를 유지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위 삼성은 5위 한화에 1.5게임차의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 있다. 전체 15경기가 예정된 이번 주는 순위 싸움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사직구장의 두산과 롯데 맞대결은 야구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가위 3연전에서 KIA에게 사살이 3연승을 거둔 두산은 SK를 홈으로 불러들여 2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삼성과의 빅매치에

서 2승을 챙긴 롯데는 대전으로 건너가 갈 길 바쁜 한화와 일전을 펼친다.

16·17일 SK, 한화와 2연전을 갖는 두산과 롯데는 18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시작으로 자리를 옮겨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된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은 이번 주말 사직 맞대결에서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4위 싸움에서는 삼성의 대진운이 좋다. 4, 5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한화는 이번 주 2경기만 치른다.

한화가 거침없는 상승세의 롯데와 부담스런 2연전을 앞두고 있는 반면, 삼성은 순



2위 두산-3위 롯데

주말 사직서 맞대결

직행여부 고비 될듯



4위 삼성-5위 한화

1.5게임차 박빙승부

타팀과 각각 2경기씩

위싸움과 상관없는 KIA, LG와의 2경기를 갖는다. 한화의 전승, 삼성의 전패가 나오지 않는 이상 4위 자리 변화는 없다.

4연패에 빠진 KIA는 신인들의 활약을 앞세워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다.

KIA는 최희섭·장성호 등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는 주전 선수들을 2군으로 내리고 신인들을 라인업에 대거 포진시켰다.

타격에 불운은 나지않은 최근 5경기에서 19타수 8안타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2루타도 2개를 기록했고,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는 이를 동안 홈런포를 가동시켰다. 루키 박진영과 2년차 신인 김주현은 지난주 프로데뷔 첫 안타의 감격을 누렸다.

특히 김진빈과 키스톤 콤비 호흡을 맞추고 있는 2루수 박진영은 깔끔한 수비와 재치있는 타격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KIA는 이번주 목동-대구-문학을 돌면서 원정 4경기를 치른다.

16일 데이비스를 내세워 장원삼과의 맞대결을 갖는 KIA는 히어로즈와의 목동 2연전 이후 18일 대구로 건너가 4위 삼성과 맞붙는다. 이를 간 휴식을 취한 KIA는 21일 문학으로 가 올 시즌 3승12패로 부진한 SK를 상대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佛 프로축구 박주영

타국서 싸 올린 '한가위 선물'

日 프로야구 이승엽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의 박주영(23)이 지난 14일 오전(한국시간) 홈구장인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FC로리앙과의 데뷔전에서 첫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야쿠르트와의 경기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이승엽이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데·뷔·골

AS모나코 이적 후 첫 출전...1골 1도움

로리앙전 2-0 승 견인...후반 34분 교체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S모나코의 박주영(23)이 데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박주영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오후 7시(한국시간 14일 오전 2시) 홈구장인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5라운드 FC로리앙과의 경기에서 전반 26분 첫 골을 신고하며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AS모나코는 교체 투입된 니마니가 후반 26분 박주영의 날카로운 스투패스를 받아 한 골을 추가, FC로리앙을 2-0으로 꺾고 정규리그에서 2승2무1패(승점 8)를 기록했다.

박주영은 이날 예상대로 11명 스타팅 멤버에 이름을 올려 선발출장했고 '원톱'으로 최전방에 포진,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교란했다. 12분 오른쪽 윙 알레한드로 세사로 알론조가 측면

을 뚫고 가운데로 흘러준 패스를 간발의 차로 놓쳤던 박주영은 25분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헤딩, 팀의 첫 유효슈팅을 기록했으나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박주영은 그러나 직후 상대의 반격 때 장-자크 고소가 공을 빼앗아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흘러준 패스를 받아 드리블 한 뒤 상대편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굴러 오른쪽 구석에 차넣어 그물을 흔들었다.

박주영은 후반 들어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포진했으나 상대 수비가 밀착 마크를 하자 미드필드와 좌우 측으로 자리를 빈번히 이동하다가 26분 해기골을 도왔다.

박주영은 후반 34분 미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근 임대 영입된 프레디 아우와 교체됐다.

복·귀·포

2군 내려간지 10일만에 돌아와

야쿠르트전 첫 타석 솔로 홈런

10일 만에 1군에 돌아온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복귀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14일 엔트리 변경을 통해 1군에 합류한 이승엽은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 2회말 맞은 복귀 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뽑아냈다.

0-0으로 맞선 2회말 선두 타자로 들어선 이승엽은 야쿠르트 선발 사토 요시노리가 초구로 던진 낮은 슬라이더를 공략, 왼쪽 펜스를 넘기는 비거리 110m짜리 홈런으로 연결했다.

이로써 이승엽은 7월27일 야쿠르트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친 뒤 정확히 50일 만에 일본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홈런포를 가동했다. 베이징올림픽 직후 1군에 합류했다가 지난 4일 2군행을 통보받

은 이승엽은 이날 오전 발표된 엔트리 변경에서 투수 애드리안 번 사이드를 대신해 10일 만에 1군에 올라왔다.

이승엽은 이어진 3회에는 2사 2루에서 1루수 팜볼로 아웃됐고 6회와 8회에는 각각 2사 1루에서 삼진과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이승엽은 시즌 타율을 0.202에서 0.205로 약간 끌어올렸고 26경기에서 8타점 8득점을 기록했다.

이승엽의 홈런을 결승점 삼아 3-2로 이긴 요미우리는 4연승을 달리며 센트럴리그 1위 한신 추격전을 이어갔다.

이승엽은 경기를 마친 뒤 "직구든 슬라이더든 존 안에 들어오면 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다"며 "오랜만의 1군 타석이었지만 베스트 스윙이 이뤄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히카르두 모나코 감독 "박주영 뭔가 보여줬다"

박주영 '주간 MVP'

'축구 천재' 박주영(23·AS모나코)이 프랑스 무대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은 뒤 소속 팀 사령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AFP통신은 지난 14일 오전(한국시간)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모나코-FC로리앙전이 끝난 뒤 '골 넣은 박주영, 모나코 승리로 칭찬받다'란 제목으로 "박주영이 데뷔전에서 득점을 올리는 기쁨을 누렸다"면서 "모나코가 승리해 히카르두 감독에게서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2주 전 FC서울에서 모나코 팀을 옮긴 박주영의 이적 사실과 함께 그가 1골, 1어시스트를 보며 모나코가 2-0으로 이긴 내용도 소개했다. 히카르두 감독은 "박주영이 이 경기에서 최우수선수

(man of the match)였다"면서 "그는 오늘 기술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 스포츠전문 ESPN 사커넷도 "박주영이 모나코에 첫 골을 안기며 팀을 끌어올렸다"면서 "모나코는 승리 결과 프랑스 1부리그 순위에서 6위까지 뛰어 올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한국인 선수의 프랑스 무대 도전은 쉽지 않았다. 프랑스 리그와 첫 인연은 최순호 울산 현대미포조선 실업축구 팀 감독이 맺었다. 최순호 감독은 1992년 프랑스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으면서 2부리그 로데스에서 잠시 뛰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프랑스 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1997년 RC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한 서정필이다.

프랑스 프로축구 데뷔무대에서 득점포를 터뜨린 박주영이 현지 언론의 라운드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지난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로리앙과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1도움을 올려 모나코에 2-0 승리를 안긴 박주영은 프랑스 축구전문 사이트 막시푹(www.maxifoot.fr)으로부터 '오늘의 선수'(joueur de la journee)로 선정됐다.

막시푹은 15일 "모나코가 최근 뽑은 신입 선수 덕을 봤다. 박주영 혼자 로리앙을 물리쳤다"면서 데뷔전에서 '월맨쇼'를 펼친 박주영을 5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신수 안타 1개 추가 82개

'한국인 최다 안타' 4개 남아



1개를 보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한국인타자 시즌 최다 안타기록까지 4개를 남겨놓았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경기에서 좌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1안타를 쳤다. 시즌 성적은 273타수 82안타(타율 0.300). 안타 4개를 더 치면 최희섭(KIA)이 2004년 플로리다 말린스와 LA 다저스에서 친 86안타와 타이틀 이룬다. 클리블랜드는 13경기가 남아 있다. 시즌 타점부문에서는 김민우(49타점)가 이미 최희섭의 2004년 기록(46타점)을 넘어섰다.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1회 말 먼저 3점을 뺏고도 3-13 역전패를 당했다.

러시아 대회 2연패

여자테니스 페드컵

러시아가 여자테니스 국가대항전인 페더레이션스컵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러시아는 1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페드컵 결승(4단복식) 스페인과 원정경기 제3단식에서 스페틀라나 쿠즈네초바(7위)가 야나벨 메디나 가리구스(29위)를 2-1로 이겨 3-0을 만들어 우승을 확정지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러시아는 최근 5년간 2006년을 제외하고 네 차례나 우승해 여자독주체제를 굳혔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올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2그룹 우승을 차지해 2009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에 출전한다.